

쇠락의 도시 문화로 새 숨... 365일 24시간 '예술 놀이터'

문화로 키우는 지역 경제

1 일본 가나자와 (上)

가나자와 = 글·사진 김경인 기자

문화예술이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다. 제조업 등 하드웨어적인 산업에 의존하던 도시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반면 일찌감치 문화예술로 눈을 돌린 도시의 성장세는 눈이 부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문화가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도 대표적인 '창조산업'인 문화예술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이다. 문화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기본이 됨으로써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예향' 광주는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그 중심에 있다.

광주뿐 아니라 세계 각국 많은 도시들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자체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문화 선진국 일본과 국내 사례들을 살폈다. 광주일보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본과 국내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고, 문화 도시 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본다.



1년 365일 24시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놀이터이자 쉼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金澤)시는 인구 45만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연간 7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문화, 예술, 전통'에 바탕한 도시의 문화정책이 원동력이 됐다.

가나자와 역사는 에도시대(1600~1867)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인 마에다 도이시에가 1583년부터 이곳을 지배하면서 시작됐다. 마에다 가문은 14대에 걸쳐 가나자와를 지배하면서 문화, 예술, 학문을 장려했다. 이후 지명의 유래가 된 금박공예 등 다양한 전통 공예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전통공예와 문화를 접했다. 이 같은 도시의 정체성은 오늘날까지도 도시 활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가나자와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쇠락의 위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지난 1968년 '가나자와 시 전통 환경보존조례'를 제정, 역사문화유산을 보존, 정비하기 시작했고,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전통 기반에 새로운 문화예술을 입힌 시민예술촌, 창작의 숲, 21세기미술관, 가나자와 장인대학 등을 만들었다. 이 같은 정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시작했다.

◇볼 꺼지지 않는 문화 놀이터 시민예술촌=365일, 24시간 볼 꺼지지 않는 시민들의 놀이터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일자로 늘어선 붉은 벽돌의 옛 공장 건물과 양자리 광장, 인공수로, 조각작품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시민예술촌에서 가장 활기가 넘친다는 뮤직 공방은 평일 오후 5시부터 6개의 스튜디오가 이미 만원이었다. 각 공방 내부에는 전문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시설과 조명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또 다른 공방에서는 30여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구연동화, 찻집놀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다.

1996년 문을 연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100여 년 된 공장 창고를 시민의 '기억보존' 장소로 남기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 장소로 재생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방적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시가 9만7000㎡ 규모의 공장을 사들였고, 이중 3만5900㎡ 면적을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이자 '문화·예술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곳은 연극·작품 전시 공간인 멀티 공방, 연극 연습·발표·제작을 할 수 있는 드라마 공방, 음악 시설이 갖춰진 뮤직 공방, 휴식 공간인 오픈 스페이스와 레스토랑 등 모두 10개 시설로 구성돼 있다. 기본적인 공연, 음악회,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다.

이 시설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방 6시간 기본 이용료가 개인이나 단체에 상관없이 1050엔(1만16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시민 중심'에 맞춰져 있고, 운영도 시민들의 몫이다.

철저한 시민 중심의 사고와 저렴한 입장료는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개관 이듬해인 1997년에만도 모두 17만4951명의 시민들이 이

문 닫은 공장 개조해 만든 '예술촌' 전통공예 체험장·휴식처 '창작의 숲' 年 700만 방문... 국내외서 벤치마킹 도시재생 모델...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용하는 등 해마다 이용인구가 20만명에 이른다.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이곳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람은 모두 371만명에 달한다. 가나자와 인구가 45만~46만명인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22.5%가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로, 이들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을 위한 레지던시 '창작의 숲'='창작의 숲'은 가나자와 시청에서 차로 5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다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시민예술촌'과 더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은 산 언덕배기에 자리한 창작의 숲은 120년 이상 된 고풍스런 건물들을 그대로 옮겨와 시민들의 창작 공방으로 꾸미면서 탄생했다. 개인이 장인들이 만든 다양한 공예품과 도구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가나자와시가 사들여 시민들이 2~3주씩 머물면서 전통 공예를 배우고, 즐기고, 발표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염색, 직조, 실크스크린, 목·동판 등 4개의 공방과 숙박동, 교류 연습동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전통 공예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워크숍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도 각 공방에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 동아리 회원들이 인근 요양부 온천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사용할 에코백에 직접 디자인한 도안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지역 노인회, 부녀회를 비롯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며칠씩 쉬면서 체험하는 용도로 인기가 높다. 세미나, 콘서트, 연극 발표회 등을 비롯해 코스프레, 큐브 대회 등도 비정규적으로 열리고 있다. 공방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다양하게 공간을 개방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 때문에 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만여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찾고 있다. 전문 시설을 갖춘 창작의 숲 각 공방이 한번에 5~10명 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도쿄 출신인 창작의 숲 구로사와 신(50) 소장은 가나자와 문화정책에 반대 동지를 틈 사람이다. 구로사와 신 소장은 "처음에는 공간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 바탕에는 전통 공예에 바탕한 가나자와의 장인정신이 깔려있었다"며 "현재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동한다는 대전제 아래 끊임없이 활용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kki@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창작의 숲' 숙박동(위)과 실크스크린 공방 내부



평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시민예술촌을 찾은 가족들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